

社說

시의원들은 각성하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중 하나가 예산심의권과 결산검사 승인권이다.

그런데 포천시의회는 예비비가 본래 용도와 달리 지출했는데 이렇다할 대안없이 승인했다는 점은 시의회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과연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

예비비란 본래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즉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예비비란 비상금과 같은 돈이다.

그래서 예비비는 불요불급, 즉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며, 큰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한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들은 예비비 지출 성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제2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포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월5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원래 기념식만 하기로 하고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9월 초순경 시민의 날 행사가 포천시장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기념행사와 더불어 문화행사 확대하기로 계획이 갑자기 변경됐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8월26일 대회개회 계획을 수립하고 9월14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관계자는 9월 초순경 포천시의회 대부분이 참석한 의원자율위원회의 날에 시민의 날 행사가 당초와 달리 확대한다고 말하고 예비비 지출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자체도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비비 지출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행부 관계자 또한 예비비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집행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해야 할 당사자인 시의회는 정작 뒤집을 지고 있는 형상이다.

위의 잘못된 예비비 지출은 분명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불요불급 예산도 아니다. 다만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려고 했고, 그 시기를 선택하는 시정 또한 매우 즉흥적이었던 것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은 위 2건의 예비비 지출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분회의에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승인해 버렸다.

물론 결산검사장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재발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의원들과 함께 자리했던 이모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예비비 편입지출에 대한 시정조치에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모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다수 포천시의원들은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행정일지라도 시정조치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표의 의식해 계획에 없었던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계획에 없는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효과는 고스란스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참모습이다.

시민들은 포천시의회가 단체장의 시너 노릇을 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기 임원 그대로 유임키로 결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제8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8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신문 발전방향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현)는 지난 14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8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신문 발전방향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최효열 발행인은 인사 말을 통해 "조사위원회 각 지부별 모임을 통해 지역별 위원간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애로사항 및 미담 등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앞으로 조사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김광봉 총수면 지부장은 "포천신문이 지역의 정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창수면 지역은 과거 병원직출물 시설 저지투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를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철 포천동 지부장은 "20년이 넘게 포천에서 살았지만 토박이들

의 텃세로 지역주민들과 하나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포천신문이 이러한 벽을 허물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복용 고문은 "여러가지로 추진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포천신문이 지역사회 정론지로 성장하도록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사위원회가 불우이웃 돕기 창구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9월7일이면 창립1주년을 맞이하는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임원개선에 관한 건은 아직 정착되지 않아 현재 임원이 1년간 유임키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각 지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부장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기본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郷土원로초대석 ⑥ …… 抱川漢詩社 代表 李曉鍾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책읽는 노인문화 요구돼, ‘직인’ ‘유림’ 필독해야”

포천의 일 선비정신 토대로 사회발전 도모해야

“포천시 향토사연구소 소장 리효중 소장은 평생에 국가는 백년대계를 위한 초등교육사업에 헌신하시고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을 뿐 아니라 특히, 포천시 향토사연구소장으로서 포천독립운동을 비롯한 향토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활동 및 책자발간과 면담 최익현 선생에 대한 송모사업 등으로 포천시가 충신, 명현, 열사의 고장이며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신 공적이 지대하시어 그 높은 공로를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이상은 포천한시사 대표 송원 리효중(80.사진)옹이 지난해 9월 팔순을 맞아 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의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20여년을 포함해 30여년동안 교직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경기도교육위원으로 8년을 봉사하며 포천향토사연구소장으로 활동해온 리 옹을 축하했다. 리 옹은 현재 포천한시사 대표로서 매주 금요일 오전 유봉헌 옹으로부터 한시를 배우고

우고 익히는 일과 본지에 한국의 선비정신을 연재하기 위해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며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리 옹은 요즘 사회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회로 전락한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기성세대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을 읽지 않는다는 오는 문제가 많으며 리 옹은 책 읽기를 권하고 있다. 노인분들에게 권하는 책은 신봉승의 ‘직인’과 최인호의 장편소설 ‘유림’이다. 이 두 권을 제대로 읽어낸다면 우리사회의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리 옹은 또 우리나라는 신라 1천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 4대 정승 중 하나인 이덕형은

임진왜란 당시 창나라에 원군지원 요청에 일익을 담당했던 공신이었으나 누군가 이덕형은 공신될 자격이 없다고 소를 제기하자 스스로 공신책봉을 사양했다. 이것이 바로 선비정신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는 일을 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여 국회에 해임안이 상정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바로 선비라고 했다.

오늘날 포천의 교육방향에 대해 리 옹은 교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존경하고 포천의 일을 되살리는 교육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리 옹은 문향 포천 전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며 최근 이해초 선양 세미나와 같은 행사가 필요하며 한시의 대가로 포천출신인 이서구 선양사업회를 발족하기 위해 조만간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기 제12대 관인농협장에 재선

972표 유효투표중 345표 얻어 최호선 후보에 69표 앞서



지난 12일 실시된 관인농협협선 선거에서 당선된 이수기 회장

지난 12일 실시된 제12대 관인농협 협선 선거에서 현 이수기 조합장이 276표를 얻은 최호선 후보를 69표 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1천90명중 973명

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9.2%) 이수기 후보가 345표를 얻어 최호선 후보 276표, 조성태 후보 181표, 조문희 후보 170표를 득표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수기 관인농협 조합장 당선자는 노년복지 기반기실 확충을 위해 경로당과 게이트볼장 지원 확대 및 서예교실과 건강관리소 설치운영, 여성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민요교실과 건강교실 운영, 교양과목 현실에 맞게 운영, 쌀 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벼 저장 싸일로 추

가견립, 정부수매 물량 전량 자체 수매 및 친환경 농업과 고시히끼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개선, 원예농업을 위해 하우스 계속 공급과 작목반 구성 적극지원, 축산발전방안으로 구제역 등 전염병 방역과 축사 소독 등 지원, 지역발전을 위해 밤 국민적인 추진운동인 1시간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 참두름 특화단지 조성 및 각 리별 단 지개발 유도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수기 기자 forme65@paran.com

제1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기관·직능단체장 49명 위촉돼



민주평통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12일 포천시 대회의실에서 대행기관장인 박운국 포천시, 지역 및 직능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12일 포천시 대회의실에서 대행기관장인 박운국 포천시, 지역 및 직능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제12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은 남성 36명, 여성 13명으로 모두 49명이며 이종희 협의회장, 이종효 수석 부회장, 이영욱, 이범, 이강림 부회장, 최창근 사무국장을 임원직으로 경기도의원 2

명으로 활동중이며 도민일보 논설위원과 포천문화원 이사 및 제11기 위원, 제12기 자문위원추진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효율적인 신문 운영 위한 방안 모색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43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4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지난 15일 오후7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제4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보다 효율적인 포천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의결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윤이용 운영위원장은 인사 말을 통해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마다 큰 성과 거두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포천신문 최효열 발행인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신문,

밝고 투명하고 신바람나는 신문을 제작하여 애독자 여러분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며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박영웅·이희순 운영위원의 해촉을 의결했고 참석이 저조

한 위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의사를 타진하기로 의결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천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역할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구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키고

인간은 우주의 바이러스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우주의 모습을 본 따 우리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졌다. 인간을 대우주를 담은 소우주라고 부르지만 이 소우주인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다. 인간의 자연적 요소인 육체는 정기신(精氣神)의 정기精氣에 해당하는데 인간의 소우주의



홍을표 포천중문고대학교 사무처장

현대의학에 의해서 과거의 불치병이 이제는 완치병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연치유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병원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암발생률,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이상의 현대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병원은 개개인의 병적 현상을

실질적 주체인 신체의 자만과 독선에 의해 후사당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매년 더 강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인간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의 바이러스다. 자연을 정복해 나가면서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것은 점점 더 강한 감기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현대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평균 80세로 연장시켜 놓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암,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 등 옛날에 없던 난치병의 목숨이 늘어나고 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해결됐지만 인간 내부로 들어가보면 육체는 옛날보다 훨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환경과 음식물이 그렇게 만드는데 인간의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인공적인 먹거리를 생산했다. 생활 패턴도 자연의 순환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원래 자연적 삶을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너무 많이 이탈했다. 정기신(精氣神)으로 구성된 인간은 조화의 시스템인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환과 음식물이 그렇게 만드는데 인간의 문명은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인공적인 먹거리를 생산했다. 생활 패턴도 자연의 순환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원래 자연적 삶을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너무 많이 이탈했다. 정기신(精氣神)으로 구성된 인간은 조화의 시스템인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내가 이 기관에 몸 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 고장을 이 기관과 연결하는 데 인간이라는 신기지물(神機之物)은 우주의 신비를 깨고 자연을 인간의 의도대로 변형함으로써 자체의 육체와 정신의 조화 구조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신이 육체를 속사시키는 것이다. 더욱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우주의 부조화를 그대로 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Advertisement for Pocheon Sinmun (포천신문)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